

사 설

조계종 제12대 총회

조계종의 제2기 개혁총단을 이끌어 갈 제12대 중앙총회가 출범했다. 지난 10월 29일 선거가 완료되어 78명의 중앙총회 의원이 선출됐고, 10일 개원식을 갖는다. 개원과 함께 열린 제13회 정기 중앙총회에서는 새 중앙총회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부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제12대 중앙총회 의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돌이켜 보면 지난 제11대 중앙총회는 우리 종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며 임기를 채운 것이 사실이다. 총회는 성원미달로 열린이나 유회되고, 급기야는 해산론까지 제기되었지만 끝까지 좋은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였다. 개혁총단 초기의 개혁정신은 실종되었고,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거의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이번 12대 중앙총회의 출범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고 새시대를 맞이하여 불교종흥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총회의원들은 진정으로 사부대중을 대표하여 총회를 이끌어 가겠다는 파수꾼으로서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 지난 11대 총회와 같은 모습을 종도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승가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고 수행을 통해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한다. 승풍을 진작하고 포교, 역경, 도제양성 등 종단의 여러 과제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대안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종단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불교계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총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업무집행기구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도 소홀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데는 공정성과 엄정성이 생명임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늘 화합승가의 모습을 잃지 말고 본래의 부처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무리 대의 민주적인 총회 운영 방식일지라도 세속적인 의회기구와는 무언가 달라야 한다. 비목과 갈등은 종단의 풍토를 흐리게 하고 종단발전을 해치는 씨앗이 된다. 중앙총회의 출범과 동시에 사부대중안에서 총회의원 모두가 함께 서약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새로운 세기, 21세기의 국가와 사회 그리고 지구촌에 희망을 안겨다 줄 수 있는 대안을 총회에 반영하여 불교정도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두루 아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21세기는 고도의 정보통신 발달로 인하여 과학 기술문명의 혜택을 골고루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첨단 정보과학사회가 될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개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변화와 변혁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 새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한국불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새 시대를 선도하고 부처님의 자기비광명이 온누리에 퍼져서 맑고 밝은 사회를 이루는데 앞장서야 한다.

끝으로 이번 중앙총회는 지난 4년동안의 개혁불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종권쟁취나 문종 파벌의식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힘을 합하여 종단의 개혁불사가 정당·여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통해 불교가 대중을 구제하고 사회에 회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 종단발전의 선도자로서 총회의원들이 앞장서 한국불교에 희망을 주고, 종흥의 초석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수요 인터뷰



7차 국난극복법회 여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연비의식 통해 국민화합 재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주최하고 태고종이 주관하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법회 제7차 선암사 법회가 16일 관음예문 연비의식으로 열렸다. 대참회 수계를 통해 거듭나는 국민적 의지를 다지기 위한 법회준비에 여념이 없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을 만났다.

“국난극복 참회법회가 이번 6차 법회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선암사 법회는 전통 연비의식을 병행하는데 그 의미를 들려주시지요.”

△보살계는 중생구제의 서원을 실천하는 불자들이 지나야 할 덕목입니다. 역사상 불교가 꽃피었던 신라 고려조에는 국가차원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을 설관해, 온 백성이 보살계를 받은 공덕으로 국가가 융성하고 화평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계를 지키므로써 업장을 소멸하고 새의지를 다진다는 바로 그 정신을 오늘에 잇는 것이지요.

“그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연 법회를 기반으로 이제는 국민에게 의욕을 심어주려는 것으로 불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새출발의 깃발을 드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어줘야 할 것은 화합정신입니다. 이번 법회도 지역화합 종단화합 나아가 국민화합을 기원하게 됩니다. 나와 내가 한몸이라는 불교의 동체대비심은 지역, 계층, 종교, 모든 ‘다름’으로부터 하나로 화합으로 이끌어 줍니다. 화합이 모든 선업의 인자입니다. 동체대비

심을 통한 국민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이미 부처님동산입니다.

“관음예문 연비의식은 어떻게 진행 됩니까.”

△관음예문 연비는 대표적인 참회의식으로 과거업생부터 현실에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새롭게 나겠다는 다짐을 하는 의식입니다. 종단의 유일한 참회 선암사에서 방장 덕암스님을 전계대회장으로 국난극복을 서원하는 대대적인 수계법회를 여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불자는 약 1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부대행사도 많이 추진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선암사 중앙조이고 천태종의 중흥시조이신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913주기 다례도 모십니다. 이날 대각국사 진영을 모시고 봉행하며, 대각국사께서 친히 수행하던 금관가사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제15회 종정이신 보성대종사의 사리를 재건하는 법회도 갖습니다.

위영린 기자(yryui@buddhopia.com)

불상에 분노를 뿌리다니...

포항 '정애원' 공사방해 주민들 조직적 훼불

포항시 청계리 주민들이 불교계 복지시설 건립을 반대하며 불상에 분노를 뿌린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주민대책위원장인 윤덕용(47)씨가 교회 집사로 밝혀져 조직적 '정애원'의 착공식을 거행하려 하자 스님과 신도들에게 축언과

폭행을 하며 행사를 저지했다. 또 이들 지역 주민들은 착공 법회식이 열릴 불사현장 진입로에 경운기와 각종 장애물을 설치하는가 하면 신도와 경찰병력에 분노와 돌을 던지고 삼존불에 분노를 세 번씩이나 뿌리는 등 의도적인 훼불을 자행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반대로 착공식은 예정 시간보다 5시간 늦어진 오후 3시30분경 경찰의 보호 속에 치러졌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 당한 주민들은 앞으로 공사를 계속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열린가람 이형 부장은 “이번 사건이 공사방해에 그쳤다면 님비현상으로 목인될 수도 있었으나 비상식적인 훼불행위를 감행해 경찰 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5일부터 폭력행위 관련자들에게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경북지역 주지스님들의 모임인 '해동회' 등 불교계의 공동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경 기자 (jkjm@buddhopia.com)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들. 앞줄 왼쪽부터 원광대 승천은, 고도불교대 디카하시 코우지, 고마자와대 아베미야 마사아, 동국대 송석구, 용곡대 기타바타케 덴세이, 송석구 총장 뒤가 다이쇼대 무라나카 유우쇼 총장.

한·일 불교대총장회의 준비위 발족

동국대, 승가대, 위덕대, 원광대 등 국내 4개교와 용곡(龍谷)대 등 일본 8개교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은 2~3일 동국대에서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총장협의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3일 열린 총장회의에서 한·일 대학총장들은 협의체 구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오는 2000년 제1회 한일 불교·철학계 대학

총장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준비위원회 대표 간사 학교로는 동국대와 용곡대가 선출됐다. 이에앞서 2일 열린 한·일 총장 강연회에서 동국대 송석구 총장과 용곡대 기타바타케 덴세이 총장은 '21세기 불교계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관련기사 4면) 김정은 기자 (jekim@buddhopia.com)



◇열린가람의 무료양로원 정애원 착공식 행사를 저지하는 포항시 청계리 주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조계종-자료 데이콤-비용 이현시스템-기술 불교정보화 '달마넷' 협정체결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은 2일 데이콤(사장 박지영)과 불교정보화 '달마넷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르면 조계종은 불교자료로, 데이콤은 비용을, 이현데이터시스템(사장 이찬영)은 정보구축과 운영을 담당한다.

종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교육을 실시한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조계종 포교사교시 11월22일 전국 실시

조계종 포교원에서 실시하는 4회 포교사교시 응시자는 674명으로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 포교사교시에는 조계사불교대학, 동산불교대학, 동국대사회교육원 등 전국의 35개 불교대학에서 응시했다. 시험은 11월 22일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고시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풍산한식 동기와 판매 및 시공

- ◆ 서풍패리 기와때문에 천남패리 대들보가 썩어서야?
- ◆ 사찰기와 재보수 미천 걱정 없습니다.

천년을 이어갈 기와, 풍산 한식 동기와로 보존 하십시오

전문 시공업체 — 대표회 대 통합장
成源産業 TEL (02)3663-1737 FAX (02)3664-8216
 H.P (011)445-7811 아간 (02)502-7811,7827

현대만평

부구원

언제까지...

포항 노인복지시설 건립

기어 이기주의

총무원장 선거에 즈음한 입장

대한불교조계종 제 29대 총무원장 선거는 새로운 세계를 맞아 종단과 한국불교를 도약시켜 나갈 지도자를 선출한다는 면에서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4일 총무원 청사에 대한 폭력적거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온 종단의 안정과 발전적 모습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 사태를 보면서 책임있는 종도로서의 입장 표명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불조와 모든 종도들에게 커다란 죄업을 짓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우리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염원하는 모든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종단과 불교발전이라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지속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 어떠한 이유에서건 폭력이 재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며, 종헌·종법에 의해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온 각종 선거가 11월 12일 까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 모든 후보진영은 인신공격등 상호비방을 자제하고 종단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제시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촉구한다.

-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11월 12일의 선거결과에 혼연히 승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42년 11월 4일

서명 동참자 일동

서명 동참자 명단

1. 본사주지

현근스님(조계사), 정락스님(용주사), 진허스님(마곡사), 법장스님(수덕사), 성덕스님(동화사), 법타스님(은혜사), 성타스님(불국사), 성오스님(범어사), 월파스님(통도사), 법조스님(고운사), 도영스님(금산사), 종결스님(화엄사), 세민스님(선암사), 현지스님(송광사), 혜산스님(선운사), 밀운스님(봉선사)

2. 12대 중앙총회의원

영조스님, 정각스님, 정인스님, 법성스님, 평상스님, 현응스님, 지홍스님, 원행스님, 종림스님, 성관스님, 종훈스님, 종하스님, 영담스님, 월서스님, 일면스님, 지현스님, 광복스님, 세영스님, 마근스님, 도완스님, 정념스님, 지명스님, 장곡스님, 종상스님, 설송스님, 근일스님, 진만스님, 법종스님, 대원스님, 정우스님, 혜창스님, 명진스님, 현봉스님(이상 33명)

3. 종진 및 선방스님

도법스님, 수경스님, 신철스님, 현산스님, 인걸스님, 지연스님, 이두스님, 성노스님, 정호스님(이상 9명)